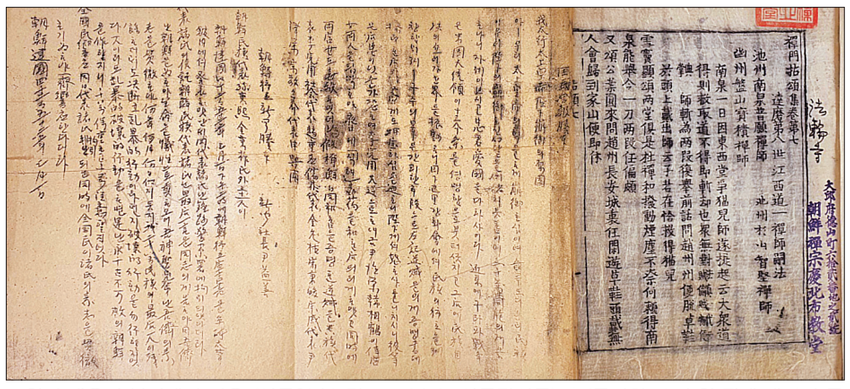

보현사 대웅전 불단에서 나온 〈선문염송〉 및 1919년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가 한 장에 새겨진 등사본(영천역사박물관 소장)

동화사 學僧 만세운동 의미 기려

대구 보현사 3월 30일 첫 추모재 개최

보현사 독립운동 기록 공개
〈선문염송〉에 '국민회보' 등 한장의 종이에 등사 기록돼
'고종 독살설' 등 내용 담겨

신성민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대구 동화사 지방학림 소속 학승들은 동화사 심검당에서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동화사 포교당인 조선선종경북포교당(현 보현사)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1919년 3월 30일 대구 덕산정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만세운동 직후 동화사 학승들은 왜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대구 최대 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승에 대한 정확한 법명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일제 공판 기록에 속명이 기록됐는데 윤학조 · 김문옥 · 허선일 · 이보식 · 이기윤 · 김윤섭 · 김종단 · 이성근 · 권청학 · 박창호 스님 등 10명이다.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동화사 10인 학승들의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102년 만에 열렸다.

대구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주지 지우)는 3월 30일 일주문 앞 광장서 '제1회 동화사 학승 대한독립만세운동 추모식'을 봉행했다.

'3.1 독립선언 역사의 현장!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은 102년 전 열린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동화사 학승 10명과 3000여 명의 운동 참여자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대응사 주지 현장 스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노무순 광복회 대구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태극기를 높이 올린 애국심이 있었기에 지금 후손들이 자유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순국선열들이 없었다면 백의민족은 노예가 됐을 것"이라며 "총칼이 자신의 가슴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덕산정 시장에서 사자후를 했던 열 분의 스님과 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독립투사들께 백만 번 천만 번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예경을 올린다"고 추모했다.

추모식 이후에는 보현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새로운 독립운동기록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기록물은 현재는 영천 용화사로 이건된 보현사 대웅전 불단에서 발견된 〈선문염송〉에서 발견된 등사본으로 1919년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가 한 장에 등사돼 있다.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31.4cm로 종이 두 장을 이어 붙였으며, 국한문이 혼용돼 있다. 두 기록물이 한 장의 종이에 등사된 것은 국내에서 최초 발견이다.

등사본 신문에는 민족대표 33인 등이 태화관에서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에 구인됐다는 내용과 2000만 민족이 마지막 1인까지 남게 되더라도 절대 난폭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비폭력 운동 방침이 실려 있다.

또한 '아태행태상황제폐하(我太行太上皇帝陛下) 붕어(崩御)에 원인(原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살설을 제기하고, '가칭선일동화(假稱鮮日同和)함을 증명(證明)한 역적(逆賊)들'이라며 귀족 대표 이완용 등 6인을 지목하고 있다.

마이산 탑사, '진안군 착한 사찰 1호' 선정

진안군 마령협의체로부터 3월 29일 현판 전달 받아



마이산 탑사는 3월 29일 진안군 제1회 착한사찰로 선정돼 현판을 받았다.

전북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매월 일정 금액(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에게 주는 '착한 사찰'에 선정됐다.

진안군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수현, 동상진)는 3월 29일 마이산 탑사를 찾아 진안군 제1호 '착한사찰'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착한사찰 현판 전달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표해 마령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진안군 1호 착한사찰로 선정된 '마이산 탑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성 스님은 "작은 돌을 모아 큰 탑을 이루듯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수현 마령면장은 "오늘 착한사찰과 착한가게 현판 전달을 통해 마령에 소재하는 기업과 업소들이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운동에 동참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부터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을 위해 매월 1개 탑 당 1만 원 이상 3만 원 상한의 정기기탁을 받아 월 3만 원 이상 기부한 업소 및 기업에는 착한가게 현판을, 월 2만 원 이상 기부 가정은 착한가정 액자를, 월 1만 원 이상 기부 개인에게는 탑 번호를 부여하는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령면에는 '착한가게' 4개소, '착한사무실' 1개소, '착한사찰' 1개소, '착한가정' 10개 가정이 기부하고 있으며, 3월 26일 기준 71개의 탑이 쌓여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생에너지 확산 나선다

3월 30일 광주남구청과 업무협약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무등)가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광주 남구청(청장 김병내)과 3월 30일 남구청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민간단체 협력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광주남구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태양광 바로알기, 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재생에너지 주민카페, 재생에너지 상담사 양성, 재생에너지 공작소 운영, 연구용역 등을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상진 스님,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이해모 사무총장, 양미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광주남구청은 3월 30일 재생에너지 확산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비는 총 5500만원으로 전국 7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주전남지역서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유일하다. 김병내 청장은 "남구가 환경을 우선하는 자치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상진 스님은 "남구에 좋은 환경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에너지 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노인福, '방역도우미' 추진

선운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신규 사업으로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역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가정으로 방역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관, 문손잡이, 화장실 배수구 등을 소독하고 해충 퇴치 방역도 함께 진행한다.


방역도우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방역을 하는 모습.

방역팀은 5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방역소독과 개미, 바퀴벌레, 모기, 쥐 등 해충 퇴치를 위한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관장 대원 스님은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청암사, 지역에 생필품 전달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는 3월 24일 코로나19로 지원마저 끊겨 힘든 상황에 놓인 지역 복지단체에 자비의 쌀과 식료품, 마스크를 전달했다. 주지 지암 스님을 비롯한 신도 봉사자들은 여수 시청에 마스크 1000장, 세구지 지역아동센터에 쌀 40kg, 장애인시설인 꿈이룸터에 쌀 100kg과 라면 5박스, 세구지 경로당에 쌀 800kg 등을 기부했다. 여수시청에 전달한 마스크는 저소득 취약가정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위기가구에 전달됐다.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여수시청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암 스님은 "어느 해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졸업식 개최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는 3월 27일 화엄템플수련관에서 화엄승가대학원 제5회 졸업식 및 제7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 및 입학식에는 제5회 졸업생과 7회 입학생이 참석했으며, 교구본사 주지 등운 스님과 대학원장 등현 스님, 총무국장 도륜 스님, 최치원 관장 정우 스님 외 본말사 스님 20여 명도 함께했다.

올해는 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그 중 5명이 연구과정에 진학했고 입학생도 9명이었다.



의성 고운사는 3월 27일 화엄승가대학원 졸업 · 입학식을 함께 진행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6